

환영만찬사

5월 15일(금) 18:00 환영 만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달, 5월의 환희와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광복 70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오신 세계 불교지도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간 이해와 대화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국내외의 이웃 종교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행 정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께도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존귀한 것이며, 이 세상이 연기(緣起)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과 행복이 오로지 나만의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처가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조금만 숨을 가다듬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인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를 향한 작은 손짓과 발걸음이 세상을 자비로움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36년 동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되찾은 광복의 기쁨도 잠시, 냉전의 국제 정세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고 현재까지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천년을 함께 살아 온 한민족이 무장 대치하고 있는 전선(戰線)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단지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과거 역사와 현재 속에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이며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성찰과 실천의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현장으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한 마음으로 기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한국불교는 간화선을 가장 수승한

수행 방법으로 삼아 지금도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간화선은 ‘참 나’를 찾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이로써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소중함과 세상의 이치를 단박에 깨닫는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면모를 느끼시고,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마음가짐으로 ‘세계 평화’를 화두 삼아 함께 정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서울 종로에서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등으로 거리를 밝히는 연등축제가 열립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말과 생김새와 생각 또한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모양의 오색 연등이 서로를 비추고 세상을 밝히듯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간화선 무차대회’가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등불을 밝히는 서원의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